

5·18 역사 간직한 '전일빌딩' 새 단장

광주시 오늘 오전 전일빌딩 옥상서 기공식 광주의 과거·현재·미래 나누는 공간 조성 5·18 총탄 원형보존·복합문화시설도 구축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이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전일빌딩 옥상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5·18 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상모놀이 식전공연과, 경과보고, 축사, 축하공연, 전일빌딩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 사업에는 국비 130억원과 시비 354억원 등 488억원을 투입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2020년 3월 완공한다.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9321㎡의 규모에 5·18 기념공간,

시민문화관, 투자진흥지구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지하 1~4층은 전자도서관, 남도관광 마케팅센터, 시민생활문화센터, 시민사랑방 등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현재 광주와 광주시민을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5~7층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기업 입주 공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 공간이 들어선다. 8층은 시민다목적홀로 꾸며 회의실과 스카이라운지로 이용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흔적이 발견된 10층을 포함한 9~10층은 총탄흔을 원형 보존하고 5·18에 대한 애국, 증거, 진실을 나누는 기념공간으로 광주의 과거를 기억하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 리모델링 조감도.

곳이다. 옥상은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상징성을 간직한 전일빌딩은 2011년 기존 소유자의 경영악화로 경매에 나오자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했다. 시설이 노후돼 지난 2016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5·18 당시 헬기총탄의 흔적이 발견되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전일빌딩은 1968년 1차 준공된 이후 세 차례의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 우수 자치단체

광주 동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민선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평가에서 광주·전남 중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민선7기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 인구변화 및 구조, 고용여건 등을 분석·검토해 2022년까지 '지속가능 및 상생의 일자리'를 넘치는 동구를 비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분야 21,203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고용서비스 분야 2,654명 ▲내일키움 통장지원 등 고용장려금 분야 931명 등 7개 분야 127개 사업에서 총 2만 5808명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앱 운영

광주 서구가 대형폐기물을 스마트폰 앱으로 배출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스마트폰 앱 '여기로'를 운영한다.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이불, 가전제품 등으로 '여기로' 앱을 통해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앱은 스마트폰 구글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여기로'를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폐기물 배출 신청은 앱에 접속한 후 폐기물 종류 및 배출날짜 등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배출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광주 남구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사업비 4억10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79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최근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취약계층 세대의 가구 보수 여부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대보수와 중보수, 경보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북구, 구제역 종식까지 방역활동

광주 북구는 구제역 종식 선언 때까지 가축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 행정력을 모은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가축 질병 위기 단계가 하향될 때까지 가축 전염병 재난 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방역 활동, 방역기기 관리, 차량 소독 등으로 구제역 예방에 주력한다. 북구는 생육동 인근에 가축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북구는 이날 초 관내 농가 38곳에서 기르던 소·돼지·염소 등 91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을 벌였다.

광산구, 협동조합 2곳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광산구 '통장네 도란도란 협동조합'과 '맛있는 수다 협동조합' 2곳이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마을기업은 시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수익·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장이다. 이번에 선정된 통장네 도란도란 협동조합은 수완동 통장단(단장 임수정)이 설립한 반찬 제조·유통업체로 로컬푸드 활성화와 소외계층 반찬 나눔 등 사회공헌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맛있는 수다 협동조합은 자연 그대로의 맛과 정성을 담은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목표로 한 청년 일자리를 기업으로 푸드·공예 분야 전문가가 청년의 꿈 실현을 돕고 있는 곳이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친환경차 1353대 보급 市 거주·지역 소재 기업·단체 지원대상

광주시는 올해 전기차 1007대와 수소차 346대 등 친환경자동차 총 1353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법인 포함)는 원칙적으로 1대만 보

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국비 420만~900만원, 시비 250만~600만원으로 총 670만~150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18일부터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민간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 광주시가 올해 보급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지난 5년 동안 보급한 친환경자동차 1656대(전기 1449대, 수소 207대)의 81% 수준이다.

신봉우 기자

'정책보조관 임용' 집행부 일방적 행정 질타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의원

지난 1일 광주 북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단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연구·검토, 정책 과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또는 시민의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등 정책보조관 임용과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골자로 하는 정책보조관직을 신설토록 한 것. 이에 대해 15일 광주 북구의회 일부의원들이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인 북구정당의 의회간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기대서 의원(중흥1·2·3, 신안, 임, 중앙동)은 "과거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크고 작은 일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불통인 경우는 없었다"며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헌법에도 기간과 규칙 공포일 사이에 의회와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였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의회, 전라좌수영 복원 촉구 건의안 채택

임종기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임종기 의원(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좌수영 복원과 충민사 관리소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종기 의원은 "417년간 남해안 방어와 임진왜란 국난극복의 분겨지인 전라좌수영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어 "충민사는 전국 최초 국립사당임에도 1993년 사적 제881호로 지정되어 충무공 유적 영구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국가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임진왜란의 실증적 연구 고찰을 위한 학예연구관을 배치하고 충민사 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청와대에 보낼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임대상속중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지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Ом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